IBKS Spot Comment

에너지/소재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에너지/소재]
카타르, 헬륨도 불가항력 선언

국내 헬륨 시장, 단기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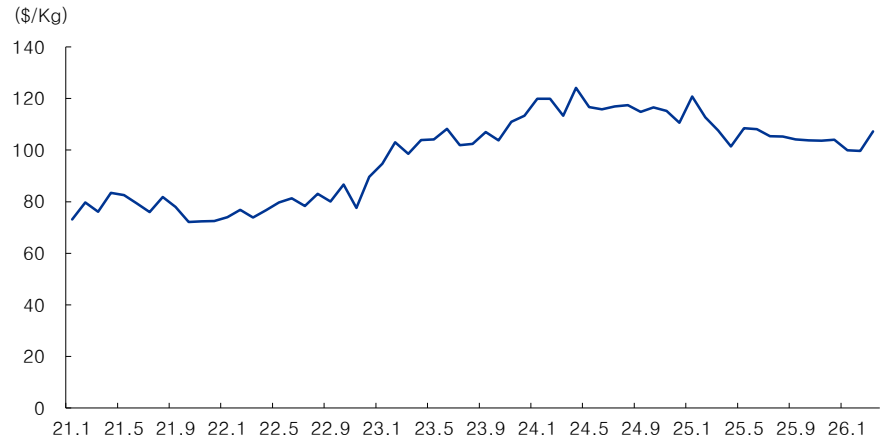
카타르 라스라판 LNG 설비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부산물인 헬륨의 공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카타르는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대형 헬륨 정제설비를 통해 월 약 520만㎥(전 세계 공급량의 약 3분의 1)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2026년 3월 초 이란의 드론 및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LNG 출하에 불가항력이 선언되면서 헬륨 생산 역시 전면 중단되었다. 헬륨은 천연가스 액화 과정에서 회수되는 부산물이므로, LNG 설비 가동이 멈추면 공급 차질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이후 3월 중순 Pearl GTL과 추가 LNG 인프라까지 타격을 입으며 조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낮아졌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까지 겹치면서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지역 전체의 공급망이 흔들렸고, 그 결과 헬륨 현물 가격은 불과 2주 만에 70~100% 급등했다.

이번 헬륨 공급 쇼크가 단순한 산업가스 가격 상승을 넘어, 첨단 반도체 및 AI 인프라 구축의 병목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헬륨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냉각, CVD 캐리어 가스, 진공 누설 검사, EUV 노광장비 광학계 냉각 등에 쓰이는 핵심 공정가스다. 특히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일수록 EUV 의존도가 높아 헬륨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헬륨 의존도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25년 기준 한국은 헬륨 수입량의 약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 역시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아 이번 공급 충격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스마트폰, 데이터센터, 생성형 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이 대체 불가능한 희귀가스와 소수 생산설비, 특정 해상 물류 경로에 얼마나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당장 심각한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자체 재고 비축, 헬륨 재사용 시스템 도입, 미국 및 독일의 세계 재고 물량, 가스업체들과 기체결된 장기공급계약, 그리고 3월 중순까지의 국내 헬륨 수입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직 실질적인 쇼크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헬륨 가격 인상은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공급 차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물 및 유통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비핵심 수요처를 중심으로 1차 가격 인상이 먼저 나타날 전망이다. 이후 분기 단위로 재협상이 이뤄지는 중장기 계약 물량에 인상분이 순차적으로 전가되면서 2차 판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으로는 이 같은 판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며, 산업가스 업체들의 실적과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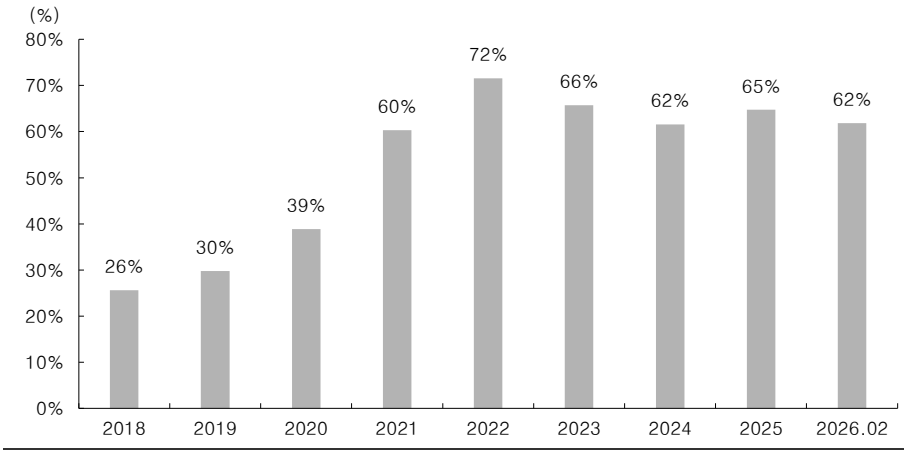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국내 헬륨 수입 가격 추이



자료: KITA, IBK투자증권

그림 2. 국내 카타르 헬륨 수입 비중 추이



자료: KITA,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